1,2,3 RUTC 시대 :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(창12:1-9)　　　11/4/2018

아브라함에게 본토, 친척,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다. 단순히 이사를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,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. 그러면서 세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.

**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.**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(복의 근원)로 약속하신 것이다.

**둘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,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약속이었다.** 절대 배경의 약속이다.

**셋째는 그 인생의 결론이다.** 그렇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.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현장의 전도자와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언약이었다. 갈3:29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을 같이 누릴 자가 되었다고 했다. 꼭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.

1.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?

1) **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축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이다.**
실제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너무 타락한 땅이었다.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.
결국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시는 거룩한 땅(Holy Land)이 된다. 훗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,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.

2) **한 세대가 어떤 언약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 그 땅과 후대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본다.**
1620년 메이훌라워 호를 타고 온 청교도 이민자들이 붙잡은 언약도 같다.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한 유명한 "메이훌라워 서약"이 있다.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었다.
하나님은 이 땅을 세계를 살리는 나라로 축복하셨다. 그리고 19세기부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다. 하나님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쓰실지, 우리 후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.

3) **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,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진실로 해본 적이 있는가?**
집에 살아도 내 집으로 살 때와 잠시 머물다 가는 렌트 집에 살 때는 그 집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.
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 사람인가?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미국을 살려 세상을 살리다 갈 사람인가?
육신적인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. 이 땅은 인디언의 땅도, 백인의 땅도, 그냥 이민자들의 땅도 아니다.
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, 이 땅을 살려 세상을 살릴 천명, 소명, 사명을 붙잡고, 그 축복을 누릴 자들의 땅이다.

2.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?
아브라함이 본토, 친척, 아비 집을 떠난 것이다. 아무 배경이 없는 가나안에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이다.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모델이 된 것이다(근원적 축복, 대표적 축복, 기념비적 축복, 시대적 축복)

1) **나를 살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.**

① **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다(근원적 축복).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.**
롯과 갈등이 생길 때 다 양보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주셨다(창13:14-15). 소돔 왕에게 한 말이 있다.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할까 하여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(창14:23)

② **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을 했다. 축복 받은 자의 모델이 된 것이다(대표적 축복)**
그 땅에 먼저 살면서 무시하고 힘들게 하던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인정을 했다(창21:22).
헷 족속들에게 땅을 사서 죽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지내려고 할 때 그들이 인정을 했다(창23:6)

2) **후대를 살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.**

① **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(창25:11)고 했다(기념비적 축복)**

② **실제로 이삭의 시대가 왔을 때 그가 누린 축복을 잘 안다.**
기근이 오지만 백배를 받았다(창26:12). 시기를 받지만 다 양보하고 "르호봇"의 축복을 받는다(창26:22).
이삭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다. "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"라고 했다(창26:3, 5, 24).
나의 평생에 붙잡은 언약, 거기서 나온 기도, 헌신, 삶이 반드시 후대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.
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자식의 축복 정도가 아니다. 모든 사람이 영적 후손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이다.

3) **시대를 살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.**

① **우리는 결국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.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것이다(시대적 축복)**
시대의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져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고,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.
우리는 그 이상이다. 내 아픔, 내 눈물로 시대의 아픔을 보고,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천명을 잡으라는 것이다.
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을 해도, 별 것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시대 살리는 축복이 된다.

② **왜 미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민족 사역이 중요한가?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이는 곳이다.**
많은 이민자들, 많은 유학생들, 심지어는 방문자들까지 생각해야 한다.
그들 중에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운다면 그들이 결국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.
"모든 민족 살리는 축복", 유대인들이 이것 놓칠 때 반대로 모든 민족의 노예로, 포로로, 속국으로 산 것이다.
나와 내 후손이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헌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.

3. 어떻게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을까?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, 훈련하고, 방향을 잡을 세가지가 있다.

1) **본토, 친척, 아비집도 떠날 수 있는 가나안의 언약은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다.**
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, 내 인생 모든 저주, 운명, 지옥 권세를 끝낸 것이다. 지금 내 안에 함께 해서 그 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 붙잡고 가시겠다는 것이다. "오직 그리스도" 묵상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라.
"나는 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, 충분하고, 모든 것이다". 잠시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

2) **언제든지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준비를 하고 살라. 전도자의 준비이다.**
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지키고, 돕기 위해 키운 군사가 318명이었다(창14:14). 조카 롯과 소돔 왕을 도와주었다.
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만큼 말씀, 기도 속에서 영성 키우라. 우리 성도들만 318명의 군사로 서도 미국 살린다.

3) **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있다. 제단을 쌓은 일이었다(6-9절). 지교회를 위한 헌신이다.**
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,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,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한 것이다.
이것이 지교회의 축복이다. 내 직장, 학교, 사업체에서 나 혼자만 시작해도 된다. 함께 할 사람이 붙을 것이다.

**결론**-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,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.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한다.